

# 총파업 이은 악재에 제주개발공사 설상가상

### 삼다수공장 포함 지하수특별관리구역 지정 관련 법제처 “공기업 예외 대상 뒤선 안돼” 유권 해석 지시 신규 개발허가 제한… 생산라인 확대 차질

총파업 사태를 맞은 제주개발공사(JPDC)가 임진데 달진격으로 악재를 또 하나 만났다. 삼다수 생산을 늘리기 위해 추진한 ‘증축 계획’이 좌절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지정 확대’와 관련,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특별관리구역에서 공기업인 JPDC를 예외 대상으로 뒤서는 안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사유는 ‘지하수 보호를 강화한다’는 목적과 부합하지 않

는다는 것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6월 26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추가 지정 예정지는 한라산국립공원을 제외한 중산간 구역 약 450km<sup>2</sup>와 고산-무릉 일부 구역 22km<sup>2</sup> 등 총 472km<sup>2</sup>로,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위치한 ‘삼다수 공장’도 포함돼 있다.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생활·농업·공업용 등 모든 시설 지하수관정의 ‘신규 개발허가’가 제한되며, 수질

및 잠재오염원 관리 등도 강화된다.

그동안 JPDC는 ‘공기업의 경우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할 수 있다’는 제주특별법을 활용해 삼다수를 생산했다. 하지만 향후 삼다수 공장 부지가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존에 개발된 곳은 문제가 없지만, 신규 개발은 사실상 어려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JPDC가 2021년 가동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L6라인’ 설치도 먹구름이 낀 상황이다. 특히 L6라인 설치를 염두에 두고 1998년 처음 조성된 L1라인을 지난해 해체하면서, 당장 4개(L2-L5)라인으로만 삼다수를 생산해야 하는 형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받아들여 본격적인 지하수자원 특별구역 확대 지정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JPDC는 지난해 4월 9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주삼다수공장 증축 부지조성 공사 설계용역’을 긴급공고했다. 이 용역에 따르면 JPDC는 기존 삼다수공장 부지 8만1396㎡에 6만5530㎡를 추가해 ▷신규생산설비(L6) ▷자동화 창고 ▷다목적부대시설(실내체육관) 등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당시 JPDC 관계자는 “기존 설비의 생산 능력이 떨어지고, 생산시장 성장에 따른 삼다수 점유율 하락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감귤 당도 높이기·발작물 적정생산 집중

### 서귀포시, 감귤·발작물 농정에 635억 투입… 감귤명인 지정도

서귀포시는 올해를 ‘2022년 감귤 조수입 1조 달성 기반 구축과 발작물 적정생산 기반 마련 정착 원년’으로 삼아 이의 실현에 집중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감귤과 발작물 관련 정책에 635억원을 투입한다고 5일 밝혔다. 투입예산은 작년보다 0.8% 증가했다.

우선 2022년 감귤 조수입 1조원 달성을 위해 감귤 분야에 280억원을 투입한다. 감귤의 경쟁력인 ‘맛’을 위해 당도가 2브릭스 높은 맛있는 감귤 생산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감귤 품종별 감귤명인 5명을 지정, 명인들의 재배기술 공유를 통한 전략농

가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품종 갱신, 성숙이식, 성숙이식 농가 농자재 지원 등도 확대한다. 또 한라봉·천혜향 등 만감류 조기출하 예방과 재배받기를 위해 만감류 출하조절 장려금도 지원한다.

발작물 분야에는 올해 처음으로 드론을 이용한 농약 방제사업을 비롯해 소농·고령농·여성농을 위한 친서민 농정시책 추진, 매밀단지 육성 지원, 성산지역 월동무 대체작물 육성을 위한 키워단지 육성,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에 270억원을 투입해 안정영농을 돕는다.

또 농산물 가공산업, 친환경농자재 지원,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등에 85억원을 투입해 6차산업 활성화와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를 계획한다.

문미숙기자

# “도 발전 변함없는 후원” 전성태 행정부지사 명퇴



전성태(사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지난 3일 명예퇴임했다. 지난 3년여간 제주도 행정부지사로 재직했던 그는 32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주도청 기자회견을 찾은 전 부지사는 퇴임 인사에서 “제가 행정부지사로 재직했던 지도 벌써 3년이 넘었다”면서 “행정부지사로 재직하면서 나름대로 우리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돌이켜보면 여러가지로 부족하고 미흡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오늘 떠나지만 사회에 나가서도 도민의 행복과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변함없는 후원자가 되겠다”면서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고향 제주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6년 12월 제주도 행정부지사로 취임한 전 부지사는 제주시 에월읍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 31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생활을 시작해 행정부 윤리복지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 안전행정부 조직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오은지기자



양배추 수확하는 농민들 4일 제주시 에월읍의 한 농경지에서 농민들이 양배추 수확 작업으로 분주하다. 이상국기자

# 최남단 마라도 전력공급 숨통 트나

### 올해 발전시설 한전서 운영되는 수요에 안정공급 기대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내 유일한 발전시설에 대한 운영을 올해부터 한국전력공사가 맡게 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예상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마라도 발전시설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지난해 말 체결하면서 올해부터 발전시설 운영주체가 서귀포시에서 한전으로 변경됐다고 5일 밝혔다.

마라도 발전시설은 2005년 11월부터 운영돼 왔는데 관광객 증가로 전력수요가 해마다 급증하면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작년 기준 마라도 총 전력사용량은 80만8432kWh로, 총 발전량(88만4350kWh)의 91.0%에 달하며 계절별 전력예비율이 떨어질 때는 주민들에게 전기절약을 독려해 왔다.

마라도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시급해지면서 시는 2010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한전과 발전시설 이관을 위한 업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2015년부터

터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마라도 발전시설 결손운영비 28억5400만원(운영비 13억3300만원, 시설비 15억2100만원)을 지원받아 운영해 왔다.

또 한전으로의 조속한 이관을 목표로 2018년 11월부터 작년 5월까지 5차례의 기관회의를 통해 발전시설의 공익성과 시설이관 당위성에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작년 12월 27일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다.

시 관계자는 “마라도 발전시설 운영이 서귀포시에서 한전으로 이관됨에 따라 앞으로 섬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전력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시스템 구축

### 도시계획 재정비 상반기 완료 도로개설·소규모 행복주택 등

제주시는 올해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균형있는 도시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심 확산 방지와 체계적인 개발도 및 불요불급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폐지를 위해 추진중인 2025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올해 상반기중 완료할 예정이다.

교차로를 조기완료해 공항 및 신제주 일대의 극심한 교통난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주요 도로변 및 야간 취약지 마을안길 등에 43억원을 투입해 가로등·보안등 980개를 고효율 LED 등으로 시설하거나 교체하고 이용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33억7000만원을 투입, 교차로 구조 개선,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 인도 및 배수로 정비 등을 추진한다.

또 지방채 발행을 통한 예산 1724억원을 확보해 도로 37개 노선(668억원)과 공원 13개소(1056억원)에 대한 토지매입과 실시계획인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시 도심 교통량 분산을 위해 부림랜드~1100도로 개설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공항우회도로 및 일제

저소득층 및 젊은층에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소규모 행복주택 건립에 15억4900만원을 투입한다. 노후관 교체 및 급수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16억원을 투자해 노후관 3.8km 교체 및 수압 불량 지역을 해소하고 대형 급수시설 1356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 및 절수기기를 보급한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 “공유재산 인터넷으로 확인”

이달부터 제주도의 공유재산 현황 지도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유재산 토지현황을 ‘제주특별자치도 공간포털’을 활용해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엔 공개된 정보를 보면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녹색, 행정재산은 분홍색, 대부·사용 중인 재산은 빛금으로 구분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공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고, 일반재산 대부분을 희망하는 사용자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그동안 공유재산은 정보접근에 제한이 있었다”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도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공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 제주시초등학교 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총동창회장 이·취임식

**테마인 어려울!**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2020년도 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제33대·제34대 총동창회장 이·취임식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0년 1월 10일(금) 오후 6시 30분  
■ 장소 : 메종글래드제주(구.제주그랜드호텔) 컨벤션홀

총동창회장 오창환 1부 정기총회 2부 총동창회장 이·취임식 3부 만찬

**총동창회 명단**

고문: 김두경(1회) 현안식(1회) 장수항(1회) 박승혁(2회) 박승규(2회) 고광식(3회) 고봉식(4회) 신재복(5회) 고성전(6회) 문경연(7회) 서정진(8회) 양태호(9회) 이철수(10회) 박봉수(11회) 소원욱(12회) 문석훈(13회) 문원규(14회) 김기홍(15회) 강순구(16회) 조건형(17회)

자문위원: 양석후(4회) 고창돈(7회) 고호자(10회) 이석문(13회) 박희수(16회) 김선우(16회) 직전회장: 고성호(18회) 감사: 김기영(18회) 문창용(21회)

총동창회장: 오창환(19회) 수석부회장: 한기원(20회)  
여성부회장: 박재희(19회) 총무부회장: 홍태욱(26회) 재무부회장: 김명미(22회)  
사업부회장: 이기우(19회) 조직부회장: 고동훈(27회) 홍보부회장: 강정선(21회)

부회장: 고병수(19회) 고영준(19회) 김성후(19회) 문성철(19회) 박창수(19회) 박희진(19회) 한희경(19회) 고순정(20회) 박민호(20회) 김황국(21회) 김창남(21회) 김형중(22회) 양승필(23회) 고경훈(24회) 양일남(25회) 한경미(26회) 문창민(27회) 김영식(28회) 한중선(29회) 백영식(30회)

부장: 여성 김경민(29회) 총무 이동훈(29회) 재무 홍은영(29회) 사업 문형철(28회) 조직 정도균(32회) 홍보 정민숙(30회)

**회기별 회장**

제1회 현석훈 제2회 한석인 제3회 고태근 제4회 문덕홍 제5회 문동식 제6회 김수연 제7회 한기성 제8회 서영희 제9회 진영수 제10회 홍경표 제11회 좌순식 제12회 김원국 제13회 김명환 제14회 강창수 제15회 정근선 제16회 김은지 제17회 고희주 제18회 정순아 제19회 이상수 제20회 변정환 제21회 홍승찬 제22회 강춘식 제23회 김경철 제24회 김성률 제25회 이창희 제26회 이진호 제27회 문창민 제28회 고영식 제29회 변성훈 제30회 양동민 제31회 오일남 제32회 김필수

**총동창회 동우회**

재경총동창회장 강종필(17회) 오름연합회장 양태호(9회) 골포동우회장 김원국(12회) 바독동우회장 장거수(7회) 뉘시동우회장 박홍주(17회)

우정과 화합의 제주서초, 그 영원한 이름으로!

## 제주시초등학교 총동창회장 오창환